

보도시점 2026. 1. 30.(금) 11:00 배포 2026. 1. 30.(금) 9:00

# “기획예산처, 국제 재정협력 본격 시동”

## - 주요국 정부·국제기구에 협력 서한 전달 -

- 재정 및 미래 대비 국제사회 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한국의 재정정책·제도 등 우수사례 공유해 국격 제고 및 영향력 확대

임기근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6.1.30(금)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속한 주요국 예산·재정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기획처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재정 정책 당국이자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기획부처로서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임 직무대행은 서한에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과 기반 재정 운용 등 기획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재정 부문을 포함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문제, 인공지능(AI) 등 산업기술 대전환 등 국제사회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처는 개도국과의 지식공유 협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재정정책 운영 경험, 제도개선, 재정정보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개도국 재정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개도국 관계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지난 1.2(금) 출범 시 국제협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국제재정협력과’를 신설하였으며, 출범 초기 활발한 대외 실무 접촉을 통해 주요국 정부·국제기구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처는 국내 재정운용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구조적 과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숙진 (044-214-1930)
		담당자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